

[큐티 클리닉 10] QT와 임마누엘(2)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큐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의 인도에 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 없이 하는 큐티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처럼 메마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이사야 시대의 문제도 그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 예배와 기도였음을 지난번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이사야서의 지혜를 경청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은 어떻게...

이사야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2~17)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며 압제의 피가 묻은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그 예배와 기도란 철저히 자신들의 탐욕적 삶과 행위를 종교를 이용해 정당화하고 스스로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단에서 무수한 제물을 죽일 때에도 그 제물과 하나가 되어 '자기'가 죽은 적이 없었다.

그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소욕을 무조건 축복해달라는 강요와 떼شم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은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었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큐티에 대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깨닫게 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 큐티를 잘 하려면 큐티 테크닉 자체보다도 우리의 평소의 삶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물론 우리가 큐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소 삶의 내적 본질은 큐티에서 폭로가 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큐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축이 새로워지기에 큐티와 평소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출처 : 큐티와 일대일